

지방출신 여성들의 서울정착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

안 윤 정

경기대학교

임 윤 서†

동국대학교

본 연구는 서울로 상경한 지방출신 여성들의 서울정착 과정에서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로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 후 남아 직장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7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근거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개방코딩에서는 110개의 개념, 21개의 하위범주와 이들을 포함하는 11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인과적 조건은 '서울정착의 힘겨움'이며 맥락적 조건으로는 '심리적 불안 심화', '생활의 질 하락', '경제적 불안의 지속'으로 나타났다. 중심현상으로는 '서울정착의 지속여부에 대한 딜레마'로, 중재 조건은 '서울상경이후 10년의 경험진단'으로 드러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개인생활의 변화', '안정된 직장을 통한 경제적 확보', '사회참여의 모색'으로, 결과는 '서울 정착의 지속성 여부 선택'으로 나타났다. 지방출신 여성들의 서울 정착과정에서의 경험에 대한 패러다임은 대학진학을 위해 서울로의 상경과 독립, 순응과 적응, 성장과 실패, 도전과 모색, 성찰과 새로운 선택 등의 정착과정을 거쳤다. 참여자들의 경험을 종합해 보면 이들은 30대가 되었어도 이방인과 같은 이질감과 불안을 인식하고 있었다. 당면한 문제들은 대학시절 보다 훨씬 복잡적이고 다양해졌다. 직장인으로서 경제활동을 본격화하였지만, 서울 출신들과의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제 이들은 누적된 피로감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 서울을 떠나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마저 엿보였다. 결론적으로 서울 상경 여성들의 안정된 정착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한국 사회 전반의 사회적 문제해결과 더불어 구체적 정책 대안들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여성, 서울상경, 정착, 근거이론, 지방출신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임윤서,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Tel : 02-2290-1649, E-mail : shao02@dongguk.edu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어디든 정주하지 못하는 불안한 삶을 영위하는 존재이다. 그가 누구이건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현대인은 바로 이방인이다. 인간은 불안과 안도감의 경계를 오가면서 끊임없이 동요하거나 변동에 대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물리적, 인지적으로 규모가 크든 작든,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김광기, 2014). 이런 맥락에서 Simmel은 ‘이방인’을 ‘잠재적 방랑자’로 명명하면서 언제나 또 다른 집단으로 이동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였다(김태원, 2014). 이러한 이방인의 개념을 사회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사람은 Schuetz(1944)로 삶의 근거지를 바꾼 이민자들의 사회심리를 분석하면서도 적응이전에 접근단계에 있는 이방인의 의식, 경험, 실천의 양상에 관심을 두었다.

지금까지 이러한 이방인의 삶과 이동성은 일자리를 찾거나 더 나은 기회를 위해 도전하는 새로운 국가로의 이동을 지향하는 주로 남성들의 몫이었다. 영원한 ‘국외자’ 혹은 ‘경계인’으로서 이방인에 대한 논의와 담론에서 젠더를 고려한 시각이 끼어들 여지는 많지 않았다. 지금은 그동안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아래 제한된 영역에서 피부양자로 머물던 여성들의 이동은 국가에 따라서 이주자의 50%를 넘어서는 등 ‘이주의 여성화’ 현상을 보이면서(김영란, 2007) 가시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에 대한 연구는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주제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모국문화유지와 이주한 국가의 문화수용 정도가 이차원으로 교차되어 통합, 동화, 분리, 주변화 등의 적응전략으로 유형을 구분했던 Berry(2001)의 이론을 많이 활용하였다. 관련 연구들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을 유형화하여 그 특성과

다른 영향요인을 살펴보는데 주력하였다(김현실, 2012; 이지연, 그레이스 정, 유조안, 2014; 최혜지, 2009). 이주여성들의 정착과정을 ‘재사회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불안과 고립을 느끼는 단계, 혼돈과 갈등을 겪는 단계, 주위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수용하는 단계,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단계로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김옥남, 김영화, 2009). 이 연구에서는 ‘재사회화’를 이주나 이민 등에 의해 사회환경이 바뀌면서 새로운 규범, 가치, 행동양식 등을 학습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으로 의미화하였다. 두 가지 연구의 방향은 모두 이주한 여성들이 한국문화와 사회에 적응을 전제로 한 논의로 주류의 문화에 수동적으로 혹은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존재로서 의미화 함으로써 이주를 통한 상호문화성과 문화생산의 주체적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웠다.

결혼을 위해 혹은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국경을 넘는 결혼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를 ‘이방인’으로 호명하면서, Simmel의 ‘이방인’을 재해석하는 작업들도 진행되었다(김광기, 2014; 김태원, 2017). 이러한 해석은 그들을 경제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국경을 넘은 사회적 약자이며, 한국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되어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실천적 행위자나 상호문화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했다.

이런 시각으로 분석된 선행연구들 중에는 ‘이주의 여성화’라는 현상에 주목하고 이주여성들의 행위성(agency)을 강조함으로써 주체적 행위자로서 이동하는 여성의 특성이나 관련 현상을 활발하게 조명한 것들이 있다. 특히 정현주(2012)는 이동한다는 것을 각종 공간성들을 가로지르거나 특정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했다. 인간의 기본적 이동은

글로벌 시대에 더욱 중요해졌고 초국적으로 확대된 이동성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지리적 상상력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여성들에게 이주, 이동하는 삶이라는 것은 공간의 범주를 벗어나 실제 하나의 삶의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이주한다고 분석했다. 이민경(2016)은 행위자 네트워크이론을 근거로 베트남 미등록 이주여성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전명희(2017)는 탈북여성이 북한에서부터 남한에 정착하기까지의 삶에 관한 연구로 Rosenthal의 내러티브-생애사 분석단계를 적용하였으며, 행위주체자로서의 관점으로 연대기 순으로 생애사를 다루었다.

김현미(2006)는 전 지구적인 이동을 중재하고 경험하며 그 과정에서 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은 바로 문화를 운반하는 인간행위자이며 그 의미화의 과정은 주체들이 존재하는 공간, 즉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은 국가 횡단적 흐름과 관계망 속에서 단순한 지리적 장소를 넘어 사회문화적이고 맥락적인 공간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주를 통해 여성들은 단순히 공간만을 이동하여 주어진 문화에 온전히 적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문화를 품고 새로운 문화권에서 자신의 의미들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종호와 노연희(2017)는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문화적응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면 한국문화를 수용하고 자신들의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수준이 모두 상승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즉, 사회적 자본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춤으로써 중심문화 수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집단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적 환경이나 가족, 동료와 같은 개인적

관계 및 학교, 이웃과 같은 활동에의 참여 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자본 또는 사회적 네트워크는 특히 이주자들이 필요한 다양한 자원이나 지지를 제공한다(Giusta & Kambhampati, 2006). 이주의 과정에서 개인의 적응은 자신이 가진 사회적 자본과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주여성들을 주체적 행위자로 분석하려고 했던 선행연구들조차 결혼을 매개로 국가를 이동한 사례가 대부분이라 결혼제도를 초월한 그들만의 경험을 찾기 어려웠고, 결혼을 통해 얻게 된 새로운 가족들과의 관계와 한국의 문화 안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규명한 연구들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박주희, 정진경, 2007). 한국에서 ‘이주의 여성화’는 여전히 결혼을 위해 국경을 넘는 대상들에게 한정됐다고 할 수 있다. 정경운(2007)은 한국사회에서 사회문화적 주체로 자신을 새롭게 구성해 나가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 이주여성의 문제를 다루면서, 정체성 구성의 장애요소를 분석하였다. 주로 생활문화와 관련된 공적 시스템이 부족한 것을 사회적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기 때문에, 사회문화에 대한 수준 높은 욕구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을 빈곤한 나라에서 온 여성이라는 배타적 시선에 의해 만들어진 타자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혼을 위해 초국가적 이주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 내에서 더 나은 기회와 욕망을 위해 이주한 여성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인데, 장민지(2015, 2016)는 이들을 ‘여성청년 이주민’이라고 명명하면서 이주를 통해 경험하는 집의 의미를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자신의 집을 장소로 만들어가는 장소화 과정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공간과 장소 속

에서 젠더의 주체성이 각각 다르게 형성된다는 점을 여성들의 서사를 통해 분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민지(2015)의 연구는 결혼 등의 가족 관계의 맥락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청년실업자이면서 젠더 불평 등의 영향을 받는 여성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들은 이주를 경험한 여성청년들이 새롭게 거주하게 된 집이라는 공간에 적응하는 과정에 국한하여 분석함으로써 이주의 다양한 양상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을 드러내지 못했다.

최근 국내 선행연구에서 서울이 가진 공간의 의미와 여성의 이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 연구들(이도흙, 2009; 이현재, 2009)은 공간을 헤게모니와 권력 투쟁, 인정 투쟁을 벌이는 역동적인 장으로, 그리고 이주를 주체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도전적 과정으로 이해한다. 박정미(2017)는 독립적으로 이주한 여성 상경자에 관한 젠더 관점의 연구를 수행하며, 역사적으로 서울에 인구와 자원이 집중된 원인 중 하나는 1970-80년대의 경제성장이었다고 보았다. 이 당시 여성 이주자들을 성적으로 취약하며 사회의 가장 낮은 영역에서 활동하는 타락한 존재로 보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는 서울 정착민들의 불안심리라고 판단하였다.

김정경(2015)은 서울로의 이주와 정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여성 생애담 텍스트를 분석하여 20세기 초반에 출생한 노년기 여성의 삶에서 서울이라는 도시로의 이주가 의미하는 바를 탐구하였다. 이들은 서울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도하고 진정한 독립을 했다고 판단된 순간, 여성들은 기존에 자신이 떠난 가족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 귀

환을 결정한다. 서울에서의 성공적인 정착민으로서의 삶이 형성되어야만, 이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되었다고 분석한다(임윤서, 안윤정, 2017).

본 연구는 이주하는 여성들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이들이 공간적 전환을 시도한 존재이면서 사회문화적 공간을 재구성하는 주체로서 규정하였다. 자신의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하여 대학을 진학하고 여기에서 직업생활을 유지하는 여성들로서 이들에 대한 해석을 확대하고자 한다. 즉,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서울로의 대학 진학을 결정하고,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서울상경을 결정한 주체들이다.

이들의 서울 상경은 과거 산업화 시대와 같은 빈곤 극복이나 가족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다. 여성의 대학진학이 남성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고 좀 더 나은 학벌과 직업을 얻기 위한 경쟁의 일환으로 서울 상경을 선택한 것이다. ‘인 서울’이라는 명명에서 드러나듯이, 입시경쟁에 몰두하여 한국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벌주의에 영향을 받으며 부모의 지원과 교사의 획일적 지도 속에 서울로 이동한 것이다. 서울로의 이동은 한국사회의 기회와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하나의 공간을 기반으로 국가 내 지역의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서울이라는 도시로 옮기는 과정과 적응은 쉽지 않다. 이들의 서울살이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통해 현실의 꿈은 사라지고 불안은 일상화되고 삶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 존재처럼 느껴지는 삶이 지속되는 것이다(임윤서, 안윤정, 2017). 서울에 정착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들과 의미들을 만들어 내며 ‘이방인’이 갖는 경계인으로서의 필연적 거리감을 좁히려 노력하지만, 새

로운 지역에서 온전히 소속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잠재적 방랑자이다(김광기, 2014).

본 연구는 서울로 상경한 여대생의 서울살이를 분석한 연구(임윤서, 안윤정, 2017)의 후속연구로 20대였던 여대생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맞이하게 된 30대의 삶에 대한 조명이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서 졸업과 동시에 직장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서울상경 여성들의 정착과정에 대한 경험을 담은 예정이다. 그들이 서울이라는 물리적이고 문화·사회적 공간에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대학생에서 직장인으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 어떤 노력과 경험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지방에서 상경한 여성들의 삶을 연속적으로 이해하고 서울에서 지방출신 여성이라는 ‘이방인’으로서의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다. 연구결과를 통해 여성이 결혼이 아닌 진학과 직업을 위해 이주를 선택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정착하는 과정의 맥락과 상황, 드러나는 현상,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과 그 선택의 결과 등을 일종의 이론화를 통해 이방인으로서 여성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통찰과 더불어 서울상경 여대생과 유사성과 이질성은 무엇이 있는지 비교해 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지방에서 상경하여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특성

No	나이	전공	학교 특성	형제 관계	결혼 여부	지역	주거 형태	현직장/직무	진로경로
1	37	건설 환경공	남녀 공학	2녀1남 (장녀)	미혼	경상 (경주)	전세	생협기관/ 홍보	여성단체생협 -> 프리랜서
2	30	미디어커뮤 니케이션	여대	4자매 (막내)	미혼	전라 (해남)	전세	서비스/ 요양보호사	종교단체간사 -> 지역 활동
3	35	경영	남녀 공학	1녀1남 (막내)	미혼	경상 (대구)	전세	NGO/ 회원관리	해외대학 MBA -> 언론사
4	32	통계	여대	2녀1남 (둘째)	미혼	경상 (거창)	자가 (부모 지원)	세무 공무원	졸업 후 공무원 수험생활 이후 합격
5	30	국문/ 사회복지	여대	3녀2남 (셋째)	결혼 예정	제주	전세	공기관(인권)/ 홍보	공공기관(복지)
6	36	화학/ 중문	여대 (편입)	1녀1남 (막내)	기혼 (자녀 둘)	제주	자가	사립대학/ 변리사	사법고시 도전 -> 리서치회사 -> 교직원(계약직) -> 학원강사 -> 동화작가 -> 변리사자격증취득 -> 대기업
7	33	행정	남녀 공학	2녀1남 (둘째)	미혼	경상 (부산)	반전세	대기업(건설)/ 기획	졸업 후 바로 대기업 입사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서울에 살고 있다. 20대 후반부터 30대 중반의 여성들이고 눈덩이 표집방식에 의해 주변 직장인들에게 해당 대상을 소개받아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은 미혼이었고, 한명은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고, 한 명만 결혼해서 자녀를 두고 있었다. 다수의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연구에 참여시킨 이유는 '결혼'이 서울의 정착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는 모두 다른 대학 출신자들이었고, 지역이나 종사하는 직무와 직장도 다양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동의서를 받았다. 심층면담의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됨을 고지하였고, 모든 개인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었다. 심층면담 이후에도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방출신 여성들이 서울에 정착하는 과정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근거이론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서울로의 상경은 국경을 넘는 이주, 더 나아가 결혼을 위해 이주한 경우와 다른 맥락이 존재하며, 단순한 지역이동의 의미를 넘어서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근거이론 방법은 탐색적 연구방법으로 기존의 이론이나 이미 정의된 개념으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주제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고 집단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어떠한 적절한 이론도 존재하지

않을 때 유용하다(Strauss & Corbin, 2001). Creswell(2015)은 연구자가 미리 이론을 설정한 후 연구를 시작하지 않는데, 오히려 연구자는 한 분야의 연구를 시작하며 이론이 자료로부터 생성되도록 접근한다. 자료로부터 나온 이론은 경험에 근거하여 일련의 개념을 조합하여 생성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추론을 통해 도출된 이론보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이론을 생성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즉, 자료로부터 도출된 이론으로서의 근거이론은 서울로 상경한 지방출신 여성들이 서울정착과정에서의 경험과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도울 것이다.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임윤서와 안운정(2017)이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진행했던 조사의 후속으로 이루어졌다. 여대생들의 상경과정에 대한 조사 이후 이들보다 앞서 서울에 상경하고 정착기에 진입한 30대 여성의 삶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본 연구의 조사는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졌다. 심층면담은 근거이론과 특별히 잘 부합되며 문화기술지나 텍스트 분석과 같은 다른 방법에 비해 자료를 구성하는데 더 직접적인 통제권이 있으며 피면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삶의 한 측면에 대해 개방적이고 심층적인 탐색을 가능하게 한다(Charmaz, 2013).

연구 참여자의 심층면담은 70분에서 120분까지 이루어졌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서울로의 대학상경에서부터 졸업 후 첫 취업, 현재까지의 직장생활까지 전 과정에 대해 개방종결형 질문으로 이루어졌다. 자료분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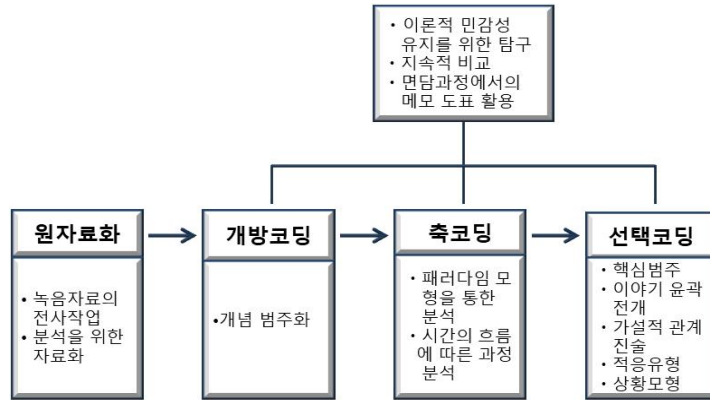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단계별 분석과정

Charmaz(2013)가 제시한 초기코딩, 초점코딩, 축코딩, 이론적 코딩 과정을 거쳐 분석되었다. 연구자 각각이 초기코딩을 수행하고 코딩된 자료를 함께 재검토하면서 수정하였고, 선택적이며 개념적인 초점코딩을 수행하였고, 범주와 하위 범주간에 관계를 맺고 범주의 속성과 차원을 구체화시키는 축코딩을 실시하였다. 전체적 분석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두 연구자는 본 연구 시작이전에 근거이론 관련 워크숍을 함께 듣고 이전연구의 심층면담자료를 가지고 근거이론 분석을 시범적으로 시도했고, 정기적으로 만나 관련 이론학습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코딩과정에서 기존이론의 틀에 갇혀 선입견을 가지고 실시하는 것을 주의하려 노력하였다. 연구자료는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텍스트 자료로 이를 일관되게 코딩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였다. 근거이론 연구에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한 삼각측정법과 연구 참여자 확인법을 사용하였다(박수정, 2015). 연구자 이외에 근거이론으로 연구경험이 있는 연구자 2인이 감수하였는데, 1인은 관련 전공 박사로서 근거이론을 활용한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하였고, 또 다른 1인은

젠더 관련 주제로 논문을 쓴 박사로서 다수의 질적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과 함께 두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되어 보지 못하는 다른 관점의 피드백을 각 코딩의 단계마다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결 과

지방출신 여성들의 서울 정착과정에서 경험에 대한 기술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은 지방출신으로 서울에 상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 했던 면담의 내용들이다. 이 자료를 얻기 위해 연구자들은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하기를 통해 개념을 정리하였다. 유사한 내용끼리 묶여진 개념을 근거로 하여 하위범주와 범주를 나누었고, 각 속성과 차원으로 발달시켜 나갔다. 이러한 개방코딩을 통해 최종적으로 110개의 개념, 21개의 하위범주와 이들을 포함하는 11개의 범주가 도출 되었으며 그 내용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 지방출신 여성들의 서울 정착과정에서 경험과 범주들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속성	차원
인과적 조건	서울 정착의 힘겨움	다양한 적응 노력의 한계	관계, 거주, 먹고 사는 것, 진로 모든 것들이 만만치 않음, 친구를 사귀는데 한계가 있음/ 서울출신들은 잘 하지 않는 동아리 활동 참여했으나 주로 지방출신이었음/ 아무리 해도 서울출신들처럼 저축이란 걸 할 수조차 없었음/ 정보가 없어서 그냥 공부만 함/ 뭔가 하고 싶어서 집회 나가고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정도	약함-강함
		심리적 위축	서울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되는 느낌을 가짐/ 사투리를 해보라는 권유가 싫었고 가급적 티를 내지 않으려 함/ 여러 가지 정서적 불안이 상존함/ 시골출신이라고 평가되기 원치 않음/ 자꾸 비교하고 비판하게 됨/ 노랑진 와보고는 지방사람들 너무 불쌍하다고 느낌/ 서울출신들은 바쁜데 나는 뭐지?/ 서울출신들이 패션이나 모든 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해서 어떤 무시 같은 것이 있음	정도	약함-강함
맥락적 조건	심리적 불안 심화	상경 열망 퇴색	굳이 서울상경을 왜 했을까 새로운 적응을 하는 것이 힘들/ 서울의 삶은 유지 자체가 힘들어서 왜 여기 오려했는지 후회되고 지칠 때가 있음/ 인서울이라는 우월감은 허구인데 대학이 더 이상 능력을 말해주지 않음을 직장에서 느낌/ 문화를 즐기러 서울에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함/ 불나방처럼 몰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됨/ 신촌에 있는 대학을 다녔던 만족감은 살기 빠세고 집 사기 힘든 곳으로 생각이 바뀜	감성	둔감-예민
		식생활의 질 저하	먹는 것에 대한 변화가 가장 큼/ 외식도 많고 부모님과 있으면 당연했던 과일과 밥이 없음/ 고기가 우리 고향에서 파는 것과 비교해서 질이 너무 낮음/ 서울에서 파는 물건을 보며 이런 걸 돈주고 왜 먹는지 허탈	수준	낮음-높음
		생활의 질 하락	갑자기 아토피가 생겨 고생을 많이 함/ 불규칙해진 일상생활로 체력이 약해짐/ 반지하 방의 습함과 곰팡이 때문에 건강이 걱정됨	연속성	일시-지속
		안전하지 않은 주거	고시원 같은데서 살다가 하숙으로 옮겼지만 너무 비쌌/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던 경험이 있어 공포심이 커짐/ 범죄자가 자매들이 사는 방을 엿보기도 해서 너무 무서웠음/ 너무나 불편한 거주 공간 처음 경험함/ 서울에서 살면서 안전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 없음	정도	약함-강함

표 2. 지방출신 여성들의 서울 정착과정에서 경험과 범주들 (계속 1)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속성	차원
경제적 불안 지속		집안 경제 수준의 영향	커피한잔 마시는 것도 신경 쓰는 지방출신자들이 있음/ 문화적인 것 보다 경제적 차이로 서울 생활 못하는 지방출신이 많음/ 기본적으로 장학금도 여유있는 서울출신들이 잘 받았음/ 티끌모아 티끌이기 때문에 부모의 지원이 관건/ 대학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3-4천 만원의 빚이 생기는데 아직도 갚고 있음/ 대학 다닐 때 방학 때 부모님이 해외여행 보내주는 애들이 부러웠음/ 좋은 대학은 돈 많은 집애들이 가는 곳임	수준	낮음-높음
		진로설계의 늦은 시작	원하는 걸 찾는 데에 너무 늦게 시작되고 불리함/ 더 높은 꿈을 꾸고 준비했어야 하는데 잘 몰랐음/ 케어 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서울출신보다 늦을 수밖에 없음/ 자기 길을 못 찾았고 준비를 빠르게 하는 서울출신들에게 위축되었음	속도	늦음-빠름
관계 형성의 어려움		지지집단 구축 경험	하숙집 거주자들과의 모임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음/ 자매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보호 받는 느낌 있음/ 대외활동을 통해 만난 지방출신 친구들이 힘이 되는 존재임/ 오빠가 함께 있었고 이끌어 주었음	정도	약함-강함
		새로운 관계갈등	서울출신들은 뭔가 자기 것만 잘 챙기고 지방출신들은 뭔가 집단적이고 느낌/ 이해타산을 모르는 친구들만 남고 빨리 가야하는 친구들은 모두 떠남/ 서울출신들은 기브 앤 테이크와 자기중심 확실한데 지방출신들은 타인중심이 강함/ 대학 다닐 때 등록금 투쟁하는 집회에도 지방출신들만 있었음	빈도	적음-많음
중심 현상	서울 정착의 지속 여부에 대한 딜레마	진정한 서울 정착의 의미 상실	서울이라는 곳은 뭘까에 대한 고민을 대단히 많이 하게 됨/ 삶의 편안함은 지방이 더 좋은데 문화, 직업 등의 이유로 서울에 있음/ 그냥 불편해도 서울패턴에 익숙해 있어서 비판하지만 떠날 수 없음/ 서울출신들은 힘든 게 없어서 피드백도 없지만 지방출신들은 경험이 있지만 해석이 없음/ 대학 다닐 때 서울은 기회의 땅이고 불거리가 많다고 생각했으나 사회인이 된 지금은 힘들고 삭막하고 경쟁뿐인 여유 없는 도시라고 생각함	선명성	흐림-맑음
중재적 조건		자신에 대한 이해 향상	서울 생활하면서 성숙한 인간이 된 것 같다는 자각, 나의 정체성이 더욱 뚜렷해지는 느낌이 있음/ 나 스스로의 경제관념이 생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삶의 균형에 대해 고민하게 됨	맥락	자기지향-타인지향

표 2. 지방출신 여성들의 서울 정착과정에서 경험과 범주들 (계속 2)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속성	차원	
서울상경 이후 10년의 경험 진단	서울생활의 장단점 성찰		서울은 독립적이고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안정감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음/ 직업과 문화자본들이 서울에 있어서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진입할 수 있는 길은 좁음/ 큰 정치적 이슈가 있는 곳이지만 정서적 공감이 없음/ 서울은 어떤 기회나 자유는 있지만 여기 오는 것이 최선은 아님/ 서울은 물질중심이고 고립과 배제가 당연시되는 느낌/ 서울의 병폐와 증독에 휩쓸려 대안을 만들지 못함/ 학업과 직장 모두 번듯하지만 아직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느낌	통찰	얕음-깊음	
		개인생활 변화	결혼의 의미	결혼에 대한 두려움과 부모님과의 트러블이 있음/ 서울 부모님들은 결혼에 대해 자유로운데 지방의 부모님들을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답답함/ 아이보다 일을 더 좋아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음/ 미래의 남편과는 너무 지쳐서 서울을 떠나고 싶어함/ 결혼할 남자가 서울출신이라 가까운 시택문제가 큰 걱정임/ 워킹맘이 되어도 서울출신들이 애를 봐줄 부모가 옆에 있지만 지방출신은 없어서 난감함/ 서울에 정착했다는 생각이 들게끔 서울에 계속 있으려면 결혼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일 뿐임	의지	강제-자발
		작용/상호작용	주거환경의 변화	아버지가 집을 마련해 줌/ 월세에서 반전세로 가까스로 바꿨지만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 함/ 셰어하우스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적응하는 중임/ 공공협동주택 등을 알아보고 있음/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곳을 알아보고 있지만 교통문제가 어려움	영역	일부-전부
안정된 직장을 통한 경제력 확보	성취중심의 직업 자기만족을 위한 직업	성취중심의 직업	커리어우먼이 목표였기 때문에 서울을 오고 싶었음/ 자기계발서를 읽고 리더십을 중요하다고 생각함/ 입학대학에 만족 못하고 편입에 성공함/ 목적의식과 승진이 중요함/ 부모님이 어디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곳에 일단 취업하는 것이 중요했음/ 로스쿨이나 대기업, 전문직 등을 목표로 함/ 멍치고 이런 공동체성을 촌스럽게 생각함	차원	낮음-높음	
		자기만족을 위한 직업	동아리나 모임 등을 하면서 경험을 많이 함/ 단순하고 담백한 일을 하고 싶고 몸으로 하는 일이 맞다고 생각/ 영화 찍으면서 자유롭게 자발적인 활동이 중요함/ 잡지도 만들고 글도 쓰고 여행도 하는 일을 지향	방식	수용-비수용	

표 2. 지방출신 여성들의 서울 정착과정에서 경험과 범주들 (계속 3)

패러다임	범주	하위범주	개념	속성	차원
	사회 참여의 모색	서울 상경자를 고려한 정책 제언	주거문제만 해결되면 서울 올 때 정서적인 것은 극복할 수 있음/ 자원이 분산되어야 함, 공공기관들이 확산되어야 함/ 교육 자원 분산 중요함/ 제대로 된 안 전망이나 케어해주는 집단이 있다면 좋겠음/ 서울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	수준	낮음-높음
		고향 발전에 대한 고민	관광지로 유명한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으나 서울사람들의 평가로 좌우된 것 같음/ 여전히 너무 올드한 느낌이라 답답함이 있고 문화적 다양성이 없어서 쉽게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음/ 지역도 독특성과 고유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와 자원 만들어야 함/ 일자리가 양적으로 늘어나면 지방에서 상경하지 않아도 됨/ 비상경자들의 박탈감과 스트레스, 열등감을 없애야 함	깊이	얕음-깊음
결과	서울 정착의 지속성 여부 선택	안정된 정착을 위한 결의	서울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루틴한 삶과 불안 없음에 만족함/ 폐쇄적인 지방보다는 서울이 힘들어도 낫다는 판단/ 서울을 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순응하는 것에 만족함/ 나만의 가정을 만들고 정착감을 느껴볼까 계획하고 있음	주도성	소극-적극
		서울을 떠나 새로운 도전 모색	학자금 빚을 청산하고 기본생활이 되면 다른 곳으로 떠날 것임/ 소비와 소진의 삶을 청산하고 시간과 여유가 있는 곳으로 옮길 계획임/ 가정도 생기고 환경 문제가 고려되기도 하며 시간소모가 많아서 고민 중임/ 서울에서 직장생활하다 환경도 신체적인 것도 맞지 않아서 떠날 예정임/ 남편 될 사람이 지쳐서 함께 떠나기로 함	주도성	소극-적극

지방출신 여성들의 서울 정착과정에서 겪는 경험에 대한 이해(패러다임 분석)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입학을 위해 상경한 이후 10년 전 후의 기간을 서울에서 보낸 이들이다. 서울 정착 과정에서 이들의 경험에 대한 맥락적 이해는 도출된 개념과 범주들 간의 관계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념들과 하위범주, 그리고 범주들

도출해내는 과정을 통해 문제의 중심 영역과의 연관성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것을 종합된 하나의 이론으로 제시하기 위해 근거이론의 틀과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중재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을 토대로 하여 축코딩을 정리하였고, 연구 참여자들이 서울 정착과정에서 갖게 된 경험의 의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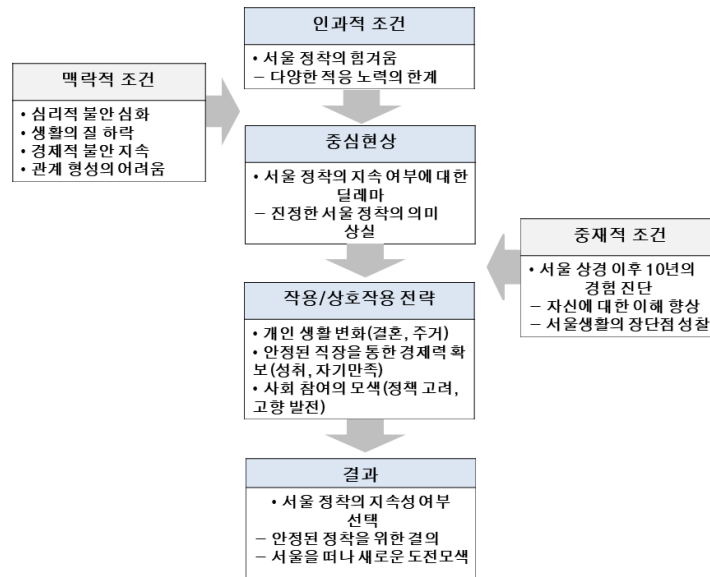


그림 2. 지방출신 여성들의 서울 정착 과정분석

그림 2의 패러다임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연구의 출발이 되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게끔 이어가는 사건이나 일들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의 중심현상인 ‘서울정착의 지속 여부에 대한 딜레마’는 연구 참여자들이 30대가 되어 서울에서 살아가면서도 ‘서울정착의 힘겨움’을 느끼는 인과적인 상황에 의해 유발된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처럼 이들은 10년 전후의 기간을 서울에서 생활하면서도 제대로 된 안정감 또는 정착했음을 느껴 본 적이 없다고 답변한 이들이 다수였다.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을 상경한 것이 공통점이었고, 사회진출 과정까지 ‘다양한 적응 노력을 하였지만 심각한 한계’를 느끼고 있기도 했다. 이들이 겪은 적응 경험은 관계, 거주, 식생활, 직업 등 청년

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 중 몇몇은 각자 사회인이 된 지금도 대학생 시절과 마찬가지로의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서울 생활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지만, 이제는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좌절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해결되지 않는 주거와 직업 등을 경험하면서 불안한 삶을 관성적으로 살아가기도 했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은 반복되는 적응 노력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정착의 방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어떻게 꾸역꾸역 잘 참아서 왔구나. 고향도 자주 못가고 1년에 한 두 번 가요. 명절 때가 아닐 때 가요. 항상 아르바이트를 해서 못 갔어요. 가면 서울 다시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들어요. 그럼에도 지금 당장 내려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필요악이지만 양가감정이 같이 작

용하는? 여기서 잘 버텨내고 있구나.”

(사례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조건이나 현상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건과 사고 등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2001). 연구 참여자들이 서울정착의 방향을 상실하게 되는 맥락적 조건은 서울 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한계가 ‘심리적 불안 심화’, ‘생활의 질 하락’, ‘경제적 불안 지속’, ‘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불안 심화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 생활을 하는 동안 지속적인 심리적 위축의 경험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서울출신자들과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자신감의 향상 보다는 심리적 불안이 심화되는 상태였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어떤 참여자는 사투리에 대한 서울출신자들의 장난스러운 권유가 자신이 자연스럽게 사용했던 언어습관을 위축시켰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자신의 고향이 시골이라는 것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여 가급적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특히 몇몇은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바쁘게 살아가는 것 같은 서울출신자들과 자신의 무기력한 생활을 비교하거나 서울 출신자들의 패션이나 교육자원이 ‘스탠다드’라고 인식되면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가지기도 했다는 서술이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욱 구체화

되고 있다. 어떤 참여자는 ‘인서울’이라는 우월감의 허구성과 출신 대학과 개인의 능력이 동일하지 않다고 비판했으며(사례 6), 서울에 집중된 문화자원을 즐기기 위해 서울 상경을 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사례 2).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이 서울상경을 했던 목표와 심리적 열망이 갈수록 퇴색되고, 서울은 살기 힘든 곳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털어놓았다(사례 1). 이러한 경험들이 ‘심리적 위축’과 ‘상경열망의 퇴색’이라는 하위범주로 정리되었고 ‘심리적 불안심화’라고 하는 범주로 통합되었다.

“너무 힘들게 생각을 하면 지방 애들은 피해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피해의식이 아니라 좋게 생각하면 발전적인 요소가 될 것 같은데. 서울 애들은 힘든 것도 없으니까 피드백도 없어요. 근데 지방 애들은 피드백을 가질 수 있는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잘 못하니까 위축되니까.” (사례 7)

생활의 질 하락

연구 참여자들이 서울 생활에서 공통적으로 밝힌 것은 전반적인 생활의 질이 하락되었다는 것이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식생활의 질 저하가 심각했다는 것이며 당연하게 섭취했던 것도 정상적으로 접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단지 부모님의 집밥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질 낮은 제품이 서울에서 비싸게 판매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부족한 식생활은 건강 악화로 이어졌고 심지어 ‘사례 1’은 성장하면서 처음으로 아토

피가 생겨 고생 했던 경험을 들려주었다. 이러한 건강 악화는 부실한 주거공간과도 연관되었는데,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반지하 방, 고시원 거주 등 습하고 좁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다. 건강에도 영향을 끼쳤던 주거공간은 범죄에도 노출된 사례가 있었다(사례 1, 5). 대표적인 것은 도둑을 당한 경험과 성범죄자들이 접근하여 공포를 느끼는 경험이었다. 이 경험으로 인해 지금도 달라진 주거 공간이지만 여전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서울에서 살면서 여성으로서 단 한 번도 안전하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자고 있는데 도둑이 들어왔는데 깨서 경찰오고... 그 때 처음으로 경찰서에 가봤어요. 큰 언니 결혼하고 신혼여행 도착하고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사례 1)

“동생이랑 제가 같이 살던 하숙이었는데 컴퓨터가 창가에 있었거든요. 거기 창문 틈으로 어떤 남자가 계속 훑쳐본 거죠. 제가 없을 때 한번은 동생 혼자서...너무 공포였어요.” (사례 5)

경제적 불안 지속

맥락적 상황의 세 번째 상위범주는 ‘경제적 불안 지속’으로 하위범주로는 ‘집안 경제적 수준의 영향’과 ‘진로설계의 늦은 시작’이 도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미 다양한 활동 경험이 있거나 대학을 졸업하고 수년이 지난 상태이지만, 경제적 자립은 요원한 상태가 많았다. 이들은 대학시절의 경험과 지금 사회생활의 전 과정에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서울

생활 자립의 관건이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였다. 어떤 참여자는 자신이 서울에서 버는 돈은 결국 ‘티끌’의 수준이고 이것을 아무리 ‘빠빠지게 모아도 티끌일 뿐’이라고 자조하였다(사례 7). 대학시절 지게 된 학자금 빚도 여전히 남아있는 연구 참여자들이 많았고, 그들이 서울생활에서 향유하고자 했던 문화적 혜택도 결국 집안의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났다는 것이다. 이들 대부분은 미혼이었는데 그 특성상 아직 누군가와 함께 가정을 직접 책임져야 하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임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진로설계와 취업의 전 과정에서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고려하거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탐색이나 인맥의 확대가 상당히 지체되거나 복원될 수 없는 상황도 초래되었다. 이는 연구 참여자들이 목표의식의 유무와 무관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급급하여 다양하고 안정된 활동 기회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었음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혼자만 힘겨워하고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 서울출신자들에 비해 자신의 길을 찾거나 꿈을 갖는 것이 더욱 어려웠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단 올라오려면 물질적 지원이 가장 커서요. 물질적 도움이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정보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서 알 수 없어요. 엄청 적극적으로 찾아보지 않는 이상 그런 기회는 거의 없어요. 생활비 대출 받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졸업하면 3, 4천 빛으로 갖고 나오니까.” (사례 1)

“생활품 사는 돈이 진짜... 그래서 저는 장학금 받았다고 해도 알바비가 다 생활비로 들어가고 제가 저금할 수 있는 돈이 없고 지금도 월급을 받아도 고정지출로 나가는 돈의 파이가 크다보니까 저금을 못해요. 근데 서울에서 졸업한 애들은 저축한 금액부터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조금 그렇죠.” (사례 3)

“제가 공부를 늦게 시작해서. 더 높은 꿈을 가지고 빨리 시작을 했어야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죠. 막연하게 올라와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케어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언니도 초반에 좀 방황을 했죠. 약간 자기 길을 못 찾았었어요.” (사례 6)

“제가 뭐 안일한 거일수도 있는데 제가 모아봤자 얼마나 모으겠냐. 티끌 모아 티끌이다. 그냥 뭐 안일한 생각인가? 있는 사람 만나서 적당히 있는 사람 만나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티끌 모아 티끌인데 얼마나 모으겠어? 라는 약간 큰 그림을... 물론 스트레스일 수 있죠. 뭐 짜증나고 그렇긴 한데.” (사례 7)

관계 형성의 어려움

연구 참여자들의 서울정착을 어렵게 하는 것 중 또 다른 하나는 관계 형성에 대한 문제가 도출되었다. 이들의 인맥 네트워크 형성의 경험은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자신을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지지집단의 구축’과 ‘새로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었다. 참여자들의 지지집단은 대부분 거주 공간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고향을 떠나 함께 지내게 된 가족구성원과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힘을 낼 수 있었다고 하는 사례와 하숙집의 지방출신 상경자들의 공유모임, 대학시절 동아리에서 만난 선후배와 친구들이 공통적인 지지집단 관계였다. 대학시절 형성된 동아리 인맥도 서울출신자들과의 교류라기 보다는 지방출신 상경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인맥을 갖게 된 이유를 한 참여자는 어려움의 공유 심리(이심전심) 때문일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유사한 지지집단 구축을 벗어나 사회생활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이 만난 새로운 관계 맺음의 경험은 긍정적이지 못했다. 개인중심인 서울출신자들에게 비해 지방출신들은 집단주의적이고 이해타산을 잘 모르는 측면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다. 한 참여자의 서술에 따르면 서울출신들은 ‘기브 앤 테이크’가 정확해서 자기 것만 챙긴다는 비판도 있었으며, 대학 시절에도 손해 보는 행동이나 이슈 참여자는 주로 지방출신자였던 것으로 기억하였다(사례 1).

“제가 느끼기에는 지역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은 은근히 차가운 것 같아요. 제가 만난 사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 사람이 조금 더 따듯했던 것 같아요. 그게 원래 서울 사람으로 자라서 그런 거 일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례 4)

“뭐 기다림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포기나 그런 거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서 되게 그런걸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기브 앤 테이크같이 내가 잃었어. 그럼 다음에 네가 채워줘야돼. 그런 개념이 확실

히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좀 지방애들은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서울애들은 그 깊이가 있다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례 5)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실제 ‘발생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조절하거나 해결하려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들이 서울정착과정에서 겪은 경험의 중심현상을 ‘서울정착의 지속 여부에 대한 딜레마’로 보았다. 참여자들 대부분 오랫동안 서울 생활에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나름의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서울 상경이 새로운 기회와 자유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열망이 있었으나, 사회인이 된 지금은 서울 상경이 최선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몇몇 참여자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을 배제하고 삭막하게 만드는데 대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고, 여유 없고 경쟁적인 도시가 서울이라고 규정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서울출신들은 힘든 것이 없어서 삶에 피드백이 없지만 지방출신들은 의미 있는 경험이 많은데 그 자체에 대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했다(사례 6). 이러한 참여자들의 서술을 통해 중심현상의 하위범주를 ‘진정한 서울정착의 의미 상실’로 분석했다.

“대학 때는 뭔가 기회의 땅이고 활기차고 다양한 볼거리가 많고 궁금함이 가득한

곳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굉장히 삭막하고 힘들고 경쟁밖에 없는 곳이고 여유가 없는 도시구나.” (사례 1)

“‘이 서울은 뭘까?’ 그때 처음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올라와서 지내고 싶었던 서울, 내가 어떤 문화적 경험과 다양한 사람들과 만난 서울에 대한 제 나름의 낭만? 근데 또 다른 면의 서울?” (사례 2)

중재조건

중재조건은 주어진 상황 또는 맥락적 조건에서 선택한 작용/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2001). 참여자들은 연구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지나온 자신의 서울 생활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대학진학을 위해 서울에 상경한 이후 사회인이 되기까지 너무 바쁘고 여유가 없어 제대로 된 서울 생활 전반을 진지하게 돌이켜 본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 참여를 통해 ‘서울상경 이후 10년의 경험진단’의 결과, 이들의 하위범주는 ‘자신에 대한 이해 향상’과 ‘서울생활의 장·단점 성찰’로 분류되었다. 연구의 답변 과정에서 이들은 크고 작은 인식의 변화를 거치게 되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서울생활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했음을 서술하였다. 서울생활 자체의 호불호를 넘어서 서울 적응이 스스로를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었고, 자신의 정체성이 뚜렷해진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 특히 경제관념이 투철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였다(사례 3, 5).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 생활의 단점이나 부족함을 현실 그대로 보게

되고, 잊고 지내던 장점을 재인식하면서 현재의 객관적 처지에 대해 살펴보는 경험을 하였다. 이들이 인식한 서울생활의 장점은 무엇보다 개인적 독립과 자유로움이 컸다. 이 의미는 지역의 좁고 폐쇄적인 공동체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며, 순간순간 힘든 서울생활에서도 지탱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물질 중심적이고 고립이 당연시되고 정서적 공감 없이 병폐와 중독에 휩쓸려 대안을 만들지 못하는 곳으로 규정했다. 이곳에 살면서 학업과 직장 모두 번듯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자신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주변의 시선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오히려 지방에서 올라 온 거는 저한테는 약간 오히려 자부심? 그런 거였던 거 같아요. 저는 제가 나고 자란 고향에서 체험한 감수성이랄까 시골에서의 감성이 저한테는 되게 좋았고.” (사례 2)

“그런 느낌은 없죠. 완전 그 반대죠. 정착했다는 느낌보다는 아직까지 뿌리를 못 내리고 있구나. 그냥 약간 떠돈다는 느낌을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약간 여기 있는 거라고는 뭐 내 명함 하나 밖에 없는데.” (사례 7)

작용/상호작용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중재적 조건의 영향 하에 중심현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이를 다루는 의도적인 실제 행위들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에서 중심현상의 해결을 위해 실행되었다고 판단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개인생활변화’, ‘안정된 직장을 통한 경제력 확보’, ‘사회참여의 모색’이었다. ‘개인생활변화’는 하위범주로 ‘결혼의 의미’와 ‘주거환경의 변화’로 분류되었다. 이 중에서 ‘결혼의 의미’는 사회인이 된 연구 참여자들이 직업을 갖는 것 이외에 인생의 중요 이정표가 되는 ‘결혼’에 대한 고려가 서울에서의 정착과 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6’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미혼 상태였는데,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은 다양한 이유를 불안정한 생활과 부모세대와의 결혼관 차이, 미래의 시댁이 서울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 워킹맘이 되어도 서울출신과 달리 도와줄 가족이 가까이 없는 것으로 인한 난감함과 포기, 서울에 정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떠나기 위해서 결혼을 고려한다는 판단 등으로 다소 복잡하게 나타났다. 서울생활이 10년을 넘어 서게 되면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주거 환경의 개선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들 중 부모의 안정된 경제적 지원이 있었던 참여자들은 이미 대학시절이나 취업과 동시에 집을 소유하여 안정된 공간을 갖고 있었다(사례 3, 4, 7). 그 외의 참여자들은 계속 열악한 월세에 허덕이다가 가까스로 반전세로 전환한 경우(이마저도 부모의 지원이 있었음),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쉐어 하우스나 공공협동조합주택 등의 대안을 모색하거나 교통이 불편해도 서울을 벗어난 곳에서 집을 찾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러한 탐색들은 주거 공간의 안정된 변화 없이는 서울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마련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또 다른 상위범주는 ‘안정된 직장을 통한 경제력 확보’로 통합되었는데 그 전제가 되는 하위범주는 ‘성취중심의 직업’과 ‘자기만족을 위한 직업’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관점은 부를 획득하겠다는 측면보다 안정된 직장이라는 개념이 더 중요했다. 이들에게 안정된 직장이 갖는 의미는 두 가지로 정리되었는데 첫 번째, 철저한 목표의식과 ‘커리어우먼’으로서의 미래 이미지를 갖고 사회적으로 번듯하고 부모가 자랑할 수 있는 전문직이나 대기업, 공무원이 되기 위해 노량진이나 고시공부 스테디 등을 하면서 일직선으로 준비하는 경우(사례 4, 6, 7), 두 번째, 대학 시절에 동아리나 자기만족적 대외활동을 통해 만났던 인맥이나 NGO 등의 경험을 하면서 적게 벌지만 자유로운 일을 하면서 균형 있게 살고 싶다는 사례들이다(사례 1, 2). 마지막으로 통합된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사회참여의 모색’이었는데 이 범주의 하위범주는 ‘서울 상경자들을 고려한 정책제언’과 ‘출신 지역의 발전에 대한 고민’으로 분류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이 중심현상 해결을 위해 고려한 행위 중에 가장 사회적이며 이슈중심적인 요소가 이 범주이다. 서울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상경하는 이들이 지금보다 더 빠르게 서울에 뿌리를 내릴 수 있으려면 주거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연구 참여자들은 제언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한국사회의 자원이 공평하게 분산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안전망이 구축되고 서울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연구 참여자들 중 몇몇은 서울 생활에 만족감이 높았고, 자신의 지역에 대한 애정이 크지 않았다. 다른 이들은 서울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신의 출신지에 대한 고

민도 깊어졌다. 서울에 집중된 문화자본과 일자리가 지역에도 제대로 확보된다면, 지금처럼 끝도 없는 희생을 감내하는 서울상경은 줄어들지 않을까 판단했다.

“활동이 계속 몸을 쓰는 일이고 이렇긴 하지만 계속 관념적인 기획하고 소통하고 말하고 이런 것이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몸으로 하는 것보다 말이 되게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많이 소진되고 어렵고. 하면서는 단순하고 담백한 일을 하고 싶다,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고민이 있었고 계속 지역 가까운데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때 문득 떠올랐던 게 거리도 가까우면서 몸을 쓸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보니까.”

(사례 2)

“제 결혼관이 너무 올드해서 제가 결혼하기 두려운 것도 조금 있죠. 저는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결혼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머릿속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너무 올드하다 보니까.”

(사례 5)

“그런 것보다도 그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상을 못하니까 선택하는 데 무서움이 없었던 거예요. 고시촌에 가서 몇 년을 고생한다는 거, 강도를 예상을 못하고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앞날에 대해서 몰랐던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받아들였다.” (사례 6)

결과

결과는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2001). 연구의 중심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참여자들의 작용/상호작용 행위를 통해 통합된 범주는 ‘서울 정착의 지속성 여부 선택’이었다. 이들은 면담 과정을 통해 서울생활에 대한 성찰이 깊어지면서 서울에서 계속 자신의 삶을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곳을 모색해서 떠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었다. ‘안정된 정착을 위한 결의’를 선택했던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을 했거나 주거가 안정되었거나 직업적 전문성이 높은 경우가 많았고, 나름의 서울 생활에 순응하는 반복된 삶이 좋다고 언급하였다. 미혼일 경우 결혼을 모색하면서 서울정착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사례도 있었다(사례 5). 두 번째로 ‘서울을 떠나 새로운 도전 모색’을 하는 연구 참여자들(사례 2, 3)의 경우에는 서울이 주는 기회요소가 소수에게만 혜택을 준다고 보았다. 이들은 소진된 삶을 청산하고 여유 있고 환경이 좋은 곳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직업적으로도 자유롭거나 개인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프리랜서나 파트타임도 괜찮다고 받아들이고 있으며 결혼이 예정된 경우 배우자도 서울 생활에 지친 상태로 서울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사례 5).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서울에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그 일자리를 통해서 번 수입이 그 생활하면서 유지하기가 너무 현저히 어렵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만 봐도 사실 서울에서의 삶이 소비해서 사는 삶을 유지

하게끔 만들지 계속 소진하게끔 하는 삶을 만들지 시간과 여백이 없는 삶이라 글썽요. 그런 걸 와서 경험하면 알겠지만 경험하면서 겪는 소진이 아깝잖아요. 가까운 걸 생각했을 때에는 어쨌든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함 이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요.”(사례 4)

“저는 서울에서도 안정감을 느껴요. 제가 여기서 오래 살고 제 루틴한 생활이 계속 돌아가니까요. 불안감이 없어요. 근데 요즘 환경 때문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사를 생각했던 게 환경 때문이에요.”(사례 6)

“서울 말고는 시골이라고 하잖아요. 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곳이 서울 수도권이 아닌 건 맞는데 가보면 알지만 시골은 아니라고, 마음이 편한 곳이기도.”(사례 7)

지방출신 여성들의 서울 정착 과정분석(축코딩)

과정분석은 축코딩의 일부인데 연구의 중심현상과 관련되어 시간의 역동적 흐름에 따라 발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대처, 조절, 반응 등에 관련된 전략의 순차적 진행과 연결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2001). 본 연구에서는 그림 2와 같이 서울정착 과정에서 ‘상경과 독립’, ‘순응과 저항’, ‘성장과 실패’, ‘도전과 모색’, ‘성찰과 새로운 선택’의 행위 변화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구분은 ‘서울정착의 지속 여부에 대한 딜레마’라는 중심현상이 패러다임 모형에서 도출된 범주들과 시간의 흐름에 따

라 어떤 연계를 갖고 변화하는 지를 분석해보고자 한 것이다.

상경과 독립 단계

이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이 다양한 동기에 의해 서울로 대학진학을 한 이후 새로운 곳에서 자신의 삶을 구축해 온 단계를 의미한다. 이들은 서울에서의 성공과 기회요소, 자원의 집중 등에 대한 열망을 가졌지만 관계, 식생활, 문화적 체험, 학업과 직업 등 모든 영역에서 적응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참여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출신지역을 밝히지 않기 위해 사투리를 순식간에 교정하면서까지 서울에 적응하고자 노력하였고, 새로운 인맥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을 이어나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서울생활에서 겪게 된 여러 가지 상황과 체험들은 심리적, 경제적으로 쉽게 극복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참여자들은 서울이라는 곳에서 성인으로서 자기 삶의 독립성과 자유를 획득하게 되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두었다.

순응과 저항 단계

서울 생활에 정착을 지향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큰 무리 없이 순응하는 경우와 서울생활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갖는 사례로 나뉘어졌다. 이들은 여러 가지 적응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감도 상실되고 심리적 위축도 강화되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모의 수준에 따라 문화적 체험이나 거주지의 조건 등이 달라지는 것을 두고 쓸쓸함과 좌절을 반복적으로 느끼기도 했다. 이와 같은 체험이 자신의 결핍을 정당하게 보상받고자 하

는 사회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며 이 활동이 또 다른 서울생활의 적응과정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성장과 실패 단계

이 단계는 독립과 순응, 저항을 거쳐 서울에서의 적응과정에서 겪는 개인 차원의 성장에 대한 평가와 의도되지 않았던 실패의 경험을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 중 몇몇은 서울에서 생활하게 되면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를 적극적으로 체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이라는 공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을 향유하였지만, 사회인이 된 지금도 여전히 소비만 하는 주변인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인맥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 자신감도 회복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주로 지속적 연계를 맺고 있는 관계는 상경의 어려움을 공유할 수 있는 지방 출신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이들은 서울출신자들에 대해서는 경쟁적이며 자기중심적이라고 판단하고 일정하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여주어 정착과정에서 관계의 확장에 다소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도전과 모색 단계

이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의 오늘이 있게끔 했던 진로설계와 사회진출 전 과정에서 시도했던 도전과 모색들이다. 이들은 서울출신들에 비해 정보력도 부족하고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없어 진로설계도 늦었고 꿈도 더 크게 품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언제나 바쁘게 자신의 미래를 모색하는 듯 보였던 서울출신들

에게 부러움도 느꼈고, 그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빠르게 안정된 직업군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안정되지 못한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잠재적 진로를 준비하는 것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데 곤란함을 겪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보다 경쟁적이고 넓은 취업시장에 도전하기보다는 지인의 소개나 비공식적인 채용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들이 다수 확인되기도 했다(사례 1, 2, 3). 조직에 들어가서는 어떤 직업군으로 진출했던 간에 이들 대부분이 매우 열심히 일했고, 서울출신들에 비해 좀 더 희생적인 헌신성을 보였다고 스스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찰과 새로운 선택 단계

이 단계는 서울정착 경험의 마지막 다섯 번째로써, 연구 참여자들이 서울 정착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새로운 선택을 자신의 의지와 성찰을 근거로 새롭게 고려하는 과정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생활의 지속적인 어려움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버티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성찰과 노력은 10여년의 서울생활의 경험에서 나온 객관적이고 의미있는 실행과정을 포함하였다. 면담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 이들의 자각은 서울의 상징성 때문에 불나방처럼 모여드는 현상을 냉담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서울 정착에 안정감을 느끼고 지금의 삶에 큰 불만이 없는 연구 참여자들 또한 지난 적응과정에서의 자기 경험을 통해 생활환경의 개선을 계획하거나 결혼과 같은 중요한 선택을 고려하였다.

이야기 윤곽을 통한 핵심범주(선택코딩)

선택코딩은 각 범주들을 차원화하고 연결하는 핵심범주를 선택하여 이론을 통합, 진술의 근거를 확실하게 정교화 하는 과정으로 코딩의 최종단계이다(Strauss & Corbin, 2001). 앞서 기술된 연구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실체에 대하여, 각 범주들을 이어주는 선택코딩의 선정은 전제로 서울 정착과정에 대한 이야기 윤곽을 도출해 내고, 이를 통해 연구현상을 대표할 수 있는 중심인 핵심범주를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서술 속에서 서울정착에서의 만족감이나 실질적인 정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기는 매우 어려웠다. 이들이 10여 년을 서울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안정되지 못한 주거지와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안정된 직업을 얻기 위해 공부나 관련 준비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참여자들도 많지 않았고, 서울출신들에 비해 자신의 진로 설계가 너무 늦게 시작되었다는 회한을 드러낸 이들도 많았다. 구직 과정에서도 협소한 인맥으로 인해 한정된 영역으로 진출한 경험들이 다수였고, 부모의 경제적 지원은 사회인이 된 지금도 지속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서울 정착 노력은 한계가 명확해 보였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이슈 문제에 동참하기도 했다. 상경 초기에 이들을 힘들게 했던 정서적 불안이나 서울출신들에 비해 열등감을 느꼈던 심리적 위축은 다소 극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정도 해결되어야 하는 주거 문제는 여전히 별 다른 차이가 없었고, 식생활의 질도 크게 나아지지 못했다.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직업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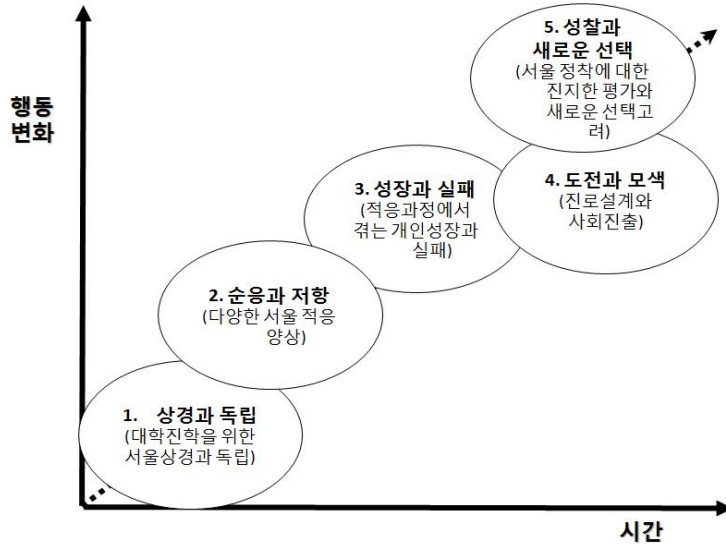


그림 3. 지방출신 여성들의 서울 정착 과정에 대한 분석(선택코딩)

대한 만족도도 높지 않았고, 학자금 빚은 여전히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진정한 서울정착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울에 왜 자신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딜레마를 마주하게 되었다. 실제 이러한 딜레마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의 성장도 자각했고 서울 생활의 장·단점 속에도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떤 실행이 앞으로 자신의 서울 생활에 안정감을 줄 것인지는 확신하지 못했다. ‘사례 5’, ‘사례 7’은 결혼을 고려하며 정착의 새로운 연결고리를 모색하기도 했고, ‘사례 2’, ‘사례 3’은 주거지를 바꾸고 자신이 만족하는 직업을 갖거나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의 성찰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범주는 ‘지속적인 서울에서의 삶을 기획하는 것과 대안적 삶을 위해 서울을 떠나는 것에 대한 고려’로 확인되었다. 핵심범주의 속성은 ‘기간(일시-지속)’으로, 차

원은 ‘주도성(소극-적극)’으로 도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서울로 상경한 20대 초반 여대생들의 상경과 일상 경험에 대한 논문의 후속으로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30대가 되어 겪어온 삶에 대한 조명으로 대학 졸업과 동시에 직장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여성들의 정착과정과 경험을 이방인이라는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였다. 기존에 이주 여성에 대한 연구가 결혼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면 본 연구는 변화된 상황과 다소 상승한 여성의 지위를 고려하여 대학 진학과 직업을 얻기 위해 이주를 선택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정착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방인인 이들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통

찰과 더불어 이들의 경험이 앞선 논문에서 다루었던 여대생들의 적응과 어떤 유사성과 이질성이 있는지 비교하고자 하였다. 심층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개방코딩을 통해 얻은 결과는 110개의 개념, 21개의 하위범주와 이들을 포함하는 11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밝혀진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에 상경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10년 넘게 서울에 살아왔다. ‘10년’이라는 시간을 연구 참여자의 조건에서 가장 중시했던 이유는 이 시기가 대학 졸업 이후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본격적인 성인기로 진입하는 시기로, 결혼을 통해서가 아닌 인생에서 제대로 된 독립적 정착을 시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학을 다니는 동안에는 적응하느라 급급했지만 이제 서울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나름의 소신을 가지고 서울생활에 뿌리 내리기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울생활의 장·단점에 대해 생각하면서 서울정착의 지속여부를 고민하였다. 개인생활의 변화를 시도하고 안정된 직장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참여의 노력을 통해 서울에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착을 위해 결혼을 생각해보기도 하고, 한계는 있었지만 주거환경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좌절감을 많이 표현하였다. 이방인은 사회의 중심부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의 변경에서 사회의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지만(김태원, 2017), 이들에게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들이 느끼는 좌절감은 마치 이방인이 중심부에 적응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경계인이

자 주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화집단이나 사회에서도 동질성을 느끼지 못하여 이질적인 감정을 겪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김태원, 2014). 상경이후 대학을 다닐 때는 이러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고 서울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서울생활을 지속할수록 서울사람과는 다른 삶의 이슈를 접하게 되고 고향에 내려가더라도 더 이상 자신이 꿈꾸는 안정감을 느끼지 못했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은 서울생활을 하는 동안 심리적 불안, 생활의 질 하락, 경제적 불안의 지속, 관계형성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대학을 다닐 때는 학업, 주거, 등록금 등 대학생활을 중심으로 한 적응 경험이 위주였으나, 직장인이 된 지금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훨씬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서울에 오래 머물렀지만 안정감보다는 심리적 불안이 더욱 강화되고 서울로 상경하여 각자의 삶에서 무언가를 얻고자 했던 열망은 퇴색되는 것을 경험하였다. 서울로 상경한 여대생들에게 ‘위험한 서울’로 표현되었던 혼자 사는 여성으로서 서울살이의 불안과 공포(임윤서, 안윤정, 2017)는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더라도 학자금 대출상환, 월세와 생활비로 인해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웠다. 서울의 높은 물가와 혼자 지속하는 삶은 식생활과 건강의 악화로 이어지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주거문제로 안전에 대한 불안은 계속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연구 참여자들 중 주거문제를 해결했다고 보여지는 사례는 대부분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 주거환경의 질이 달라진 경우였다.

셋째,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진출을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시기는 서울 출신자들에 비해 대체로 늦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직업 선택 양상은 두 유형으로 크게 분류되었다. 안정된 직장을 찾는데 있어 사회적 시선을 중시하는 성취중심의 구직활동과, 자신의 소소한 행복이나 만족을 중시하는 직업 선택 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생활을 위해 중요한 정보의 획득이나 자원의 활용 등에 있어서는 이들의 부모나 고향의 지지집단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에서 지지집단을 형성하는 것도 다소 협소하였는데 대부분 지방출신자들로서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았으며, 서울출신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는 이방인과 같은 이질적 느낌은 여전했다. 이들 중에서 서울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잘 구축해온 사례의 경우 서울 생활에서 다소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의 경우는 서울 정착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드러냈다. 이방인에게 필요한 것은 접근하려는 사회에 대한 '레시피'인데 이는 일종의 접근하려는 세계에 대한 레시피의 지식(knowledge of recipe)이고 해석의 스키마이고 안내서이다(Schuetz, 1944).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이러한 레시피와 스키마를 익히고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는 개인차에 따라 속도에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서울에서의 인간관계를 제대로 맺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지역사회참여, 네트워크, 신뢰 등의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모국문화를 유지하는 수준이 모두 상승했고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낮춘다는 기존연구결과(이중호,

노연희, 2017)와 연관시켜 볼 만한 부분이다.

넷째, 연구 참여자들은 대학진학을 위해 서울로의 상경과 독립, 순응과 적응, 성장과 실패, 도전과 모색, 성찰과 새로운 선택 등의 정착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에서 삶을 이어나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떠날 것인지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이 주는 혜택과 기회의 요소를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임윤서와 안운정(2017)에서 여대생들의 '흔들리는 서울로망'으로 서울생활의 실체를 인식하는 장면과 연결되지만, 서울생활의 적응이후 나아질 거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졌던 여대생들보다 더 현실적이고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대학생으로서의 불안감은 아직 학생이고 정착의 과정이고 인간관계 구축도 미흡한데서 오는 일시적인 힘듦과 어려움이라고 생각했기에 희망이 전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경험해 온 연구 참여자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보다는 현실적 타협과 안주 속에서 대안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다섯째, 연구 참여자들은 이질적인 두 지역과 문화가 교차하는 서울이라는 공간 속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고 사회문화적이고 맥락적인 공간으로 서울을 평가하고 때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서울과 고향에 거리두기가 가능했다. 서울 상경자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과 서울중심성에 비판과 더불어 고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었다. 김태원(2017)은 이방인이 다양한 사회공간의 경계를 넘어서 오고가는 존재이며 새로운 상호문화 공간을 구성하며 가치체계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새로운 문

화를 재생산하는데 개입하는 존재로 보았다. 서울로 상경한 여성들은 이방인으로서 어느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다양한 관점으로 서울과 자신의 고향에 대한 정체성을 표현하였지만, 문화의 주체적 생산자로서의 상호문화성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서울살이에 지쳤지만 이미 익숙해져버렸고, 익숙하지만 여전히 낯설고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고된 청년세대의 한계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서울로 상경한 여대생의 서울살이(임윤서, 안윤정, 2017)의 후속연구로 그들의 30대 정착과정을 담고자 하였다. 대학진학을 위해 서울로망을 꿈꾸며 서울로 상경한 여대생들은 그토록 원하던 문화생활을 즐기며 더 많은 기회의 땅 서울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컸다. 서울적응에 시간과 노력을 쏟으면서 진로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취업준비의 시기는 다소 늦었으며, 인간관계의 어려움은 반복되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해도 안전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는 여전히 어려웠다. 서울로의 취업이 당연한 선택이었지만, 어디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온전한 정착을 위해 서울생활의 지속여부를 고민하기에 이른다. 이들의 정착과정에서 보이는 경험은 동시대 청년들의 문제의식과 삶의 형태와 유사한 면이 많았지만, 이주라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공간과 문화에서 오는 적응의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컸다. 사회적 자본이 이미 결정되어 직업의 소득을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세대적 특성도 동시에 보여준다. 이들도 오늘날의 청년세대처럼 결혼이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지만 고민거리의 하나였고, 결혼을 통해 서울로의 온전한 정착에 대한 기대나 의지는 낮았다. 서울로의 이른 상경은

독립심과 삶에 대한 주도성을 길러주었으며, 자립의 경험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었지만, 자신의 지난 시간들이 어렵고 힘든 길이었기에 후배들에게 서울상경을 적극적으로 권하는 연구 참여자들은 드물었다. 이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그 시작부터 누적된 피로감과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으며, 특히 주거문제는 정책적인 해결과 개입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들의 경제적 지위, 학벌, 사회자본, 지역, 직업의 위세, 고용형태 등에 따라 대학졸업이후 서울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의 구체성이 다를 것이다. 이를 서울로 상경한 ‘지방 출신 여성’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으로 분석했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본 연구는 서울정착의 지속여부에 대한 딜레마를 중심현상으로 보고 서울로의 상경에 집중하여 정착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이후에는 서울로 상경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남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직업생활을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서울에서 정착을 지속하는 여성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방에서의 새로운 대안들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한 국가 내 이주를 통해 여성들이 정착과정에서 결혼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는 결혼을 통해 국경을 넘는 결혼이주여성과는 다른 양상과 선택과정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문헌

김광기 (2014). 이방인의 사회학. 파주: 글항아리

- 리.
- 김영란 (2007). 이주여성노동자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경험적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46(1), 43-95.
- 김옥남, 김영화 (2009). 도시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재사회화에 관한 질적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9(1), 55-80.
- 김정경 (2015). 여성생애담에 나타난 이주와 정주의 양상과 그 의미. *구비문학연구*, 41, 5-29.
- 김태원 (2014). 생활세계와 이방인으로서의 결혼이주민. *현대사회와 다문화*, 4(1), 1-26.
- 김태원 (2017). 게오르그 짐멜의 이방인 이론과 상호문화. *인문사회* 21, 8(2), 69-88.
- 김현미 (2006). 국제결혼의 전 지구적 젠더정치학: -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70, 10-37.
- 김현실 (2012). 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변용, 문화 적응 스트레스 및 우울의 관계. *보건과 사회과학*, 32, 39-70.
- 박수정 (2015). 중산층 여성의 '일터로 돌아오기' 과정에 나타난 일상의 학습경험 -구성주의 근거이론의 접근. *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주희, 정진경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 *한국심리학회: 여성*, 12(4), 395-432.
- 박정미 (2017). 무작정 상경-서울 이주자에 관한 담론과 젠더. *사회와 역사*, 113, 311-344.
- 이도흙 (2009). 서울의 사회문화적 공간과 그 재현 양상 연구 - 19세기의 '포의교집' · 일제시대의 '천변풍경' · 1960년대의 서울, 1964년 겨울을 중심으로". *기호학연구*, 25, 45-82.
- 이민경 (2016). 이주-정착-귀환의 행위자 네트워크- 베트남 미등록 노동이주여성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2, 223-264.
- 이종호, 노연희 (2017).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자본,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간의 관계. *다문화콘텐츠연구*, 24, 235-273.
- 이지연, 그레이스 정, 유조안 (2014). 결혼이주 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3), 1-15.
- 이현재 (2009). 여성의 이주, 다층적 스케일의 장소 열기 그리고 정체성 저글링. *여성문학연구*, 22, 7-36.
- 임윤서, 안윤정 (2017). 서울에서 '지방출신 여대생'으로 살아가기: 서울 살이에 대한 포토보이스 적용.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56(2), 205-256.
- 장민지 (2015). 젠더/무의식과 장소: 20~30대 여성청년 이주민들의 '집의 의미. *미디어, 젠더 & 문화*, 30(4), 41-81.
- 장민지 (2016). 유동하는 세계에서 거주하는 삶: 여성청년 이주민의 장소 만들기. *문화연구*, 40(1), 68-105.
- 전명희 (2017). 한 탈북 여성의 정착과정에 관한 생애사 연구: 주변에 서서 창조적 중심이 되다.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8(3), 145-176.
- 정경운 (2007). 이주여성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정체성 구성의 장애요소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6(1), 97-139.
- 정현주 (2012). 이주여성들의 역설적 공간? 억압과 저항의 매개체로서 공간성을 페미니스트 이주연구에 접목시키기. *젠더와 문화*, 5(1), 105-144.
- 최혜지 (2009). 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관

- 런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1), 163-194.
- Charmaz, K. (2013). 근거이론의 구성: 질적 분석의 실천 지침-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A Practical Guid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박현선, 이상균, 이채원 공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06에 출판).
- Creswell, J. W. (2015). 질적연구방법론-다섯가지 접근-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Choosing Among Approaches 3rd edition}*. (조홍식, 정선욱,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2013에 출판).
- Berry, J. W. (2001). A psychology of immigration. *Journal of Social Issue*, 57(3), 615-631.
- Giusta, M, D., & Kambhampat, Ui. (2006). Women migrant workers in the UK: social capital, well-being and integra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18, 819-833.
- Strauss, A., & Corbin, J (2001). 근거이론의 단계 -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ition}*.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원전은 1998에 출판).
- Schuetz, A. (1944). The stranger: An essay in social psycholog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9(6), 499-507.
- 논문 투고일 : 2018. 03. 06
1 차 심사일 : 2018. 03. 12
게재 확정일 : 2018. 05. 16

Grounded Theory Analysis on the Experience of Women from the Provinces Settling in Seoul

Yoonjung An

Kyonggi University

Yunseo Iem

Dongguk University

In order to analyze the experience of women from the provinces settling in Seoul, the current study conducts in-depth interviews on seven women who are working in Seoul after coming up to Seoul to attend and graduate from university. The results of the interview were analyzed using grounded theory methodology, under which the open coding extracted one hundred ten concepts, twenty-one sub-categories, and eleven categories encompassing them all. Causal condition is 'difficulty of settling in Seoul' and contextual conditions are 'intensification of psychological anxiety', 'reduction in quality of life', and 'continuation of economic instability'. The central phenomenon is 'dilemma of continuing life in Seoul' and intervening condition is 'diagnosis of ten years after coming up to Seoul'. Action/interaction strategies are 'changes in personal life', 'securing economic abilities through a stable job', and 'finding ways to participate in the society', while the result was 'choosing whether to continue living in Seoul'. The paradigm of experience of women from the provinces settling in Seoul proceed from coming up to Seoul for university to becoming independent, adapting to life in the city, experiencing growth and failures, facing challenge and searching for solutions, and conducting self-evaluation and making new choices. The participants reported that they were aware of differences and experienced anxieties as a stranger in Seoul even after living in the city for ten years; the problems they face have become more complex and diverse since when they were in university, and while they launched a career and making money, the gap between them and their peers from Seoul has not closed. The women also express desperation that they may need to leave Seoul to find alternatives to problems caused by accumulated stress and social problems that cannot be solved by an individual. In conclusion, the current study confirmed that efforts by individuals can only have limited effects in helping women from the provinces to settle in Seoul, indicating that detailed policy plans are required to solve social issues in the overall Korean society.

Key words : women, coming up to Seoul, settling, grounded theory, local origin